

늘 2인자였던 장성택의 삶을 통해 보는 북한

우석대학교 총장과 주영 주일 대사 국장원 해외담당 차장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한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가 '장성택의 길' (알마출판사 펴냄)을 출간하고 27일 오후 서울 클럽 한라산룸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박형중 북한문제 전문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장성민 언론인 등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강연에 이어 질의 응답식으로 이어진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판권보장장 장성택의 일생을 통해 북한문제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다 이 책은 북한의 가파른 현대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재의 김정연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습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마주하고 있다.

라종일 '장성택의 길' 출간 김일성의 딸 김경희 만나 권력 중심부에서 펼친 정치행적과 권력다툼 조명

하지만 견고한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늘 제2인자로 살아야 했던 이의 삶은 어땠을까 '장성택의 길'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된 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인물 장성택에 대한 면밀한 자료 수집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과 수차례 자문을 나눈 끝에 탄생했다.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일의 매제 그리고 김정연의 고모부였던 그는 베이징에 가려진 북한 정권 내에서 돈과 권력, 성공과 좌절, 그리고 사랑과 친족에 의한 비극까지도 모두 맛본 드라마틱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즐기며 야망을 키우던 청년 장성택이 김일성 '수령'의 딸 김경희와 만나 위협하면서도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들고 마침내 김정일의 도움으로 김일성의 승낙을 얻어내 모스크바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가 김정일 수하에서 본격적인 제2인자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펼쳐졌던 파란만장한 정치 행적과 권력 다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한 저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2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미국의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남가주대, 프랑스의 소르본느대, 그리스의 아테네대 등에서 연구교수와 교환교수를,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펠로우를 역임했다. /정혜은 기자



파란만장한 장성택의 삶을 짚어보며 북한 사회의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전 우석대 라종일 총장의 '장성택의 길' 출간

전국한지공예대전, 전통부문 '어울림' 출품 김금비씨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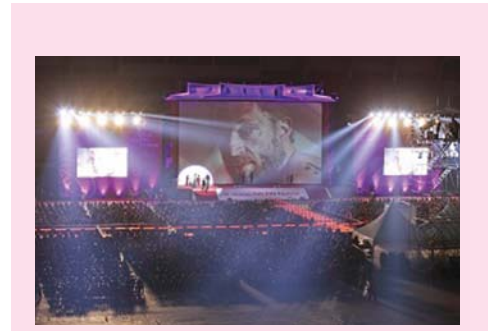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제22회 전국한지공예대전에서 전통부문에 '어울림'을 출품한 김금비(53)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어울림'은 성형 틀에 지호로 초벌을 바르고 삼베를 호칠로 2회를 발라준 다음 건조시켜 갈기 후, 재발지호에 생칠과 방충성이 높은 계피기루를 배합하여 전체적으로 음향을 주면서 퍼바르기를 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전에는 전국에서 16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금상 내영혜 '보자기 섬이피다' (문화상품부문), 김정아 '힐링' (현대부문)
- ▲은상 양정선 '봄의향기' (문화상품부문), 조호의 '약장' (전통부문), 박지원 '진격의지열' (현대부문)
- ▲동상 정원관 민족의혼' (기타한지부문), 김옥금 '화접도' (전통부문), 최성민 '저고리와 바지' (현대부문), 정선 조각되어 너에게로' (현대부문)

이 밖에 특별상 13명, 특선 33명, 입선 80명이 입상 했다. 시상식은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인 5월 5일에 개최되며, 시상작품은 5월 5일~8일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에 전시된다. /정혜은 기자



1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모습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개막

오후 7시 영화의 거리 내 육도주차장에서

독립·대안 영화들로 점철된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이 28일 오후 7시 영화의 거리 내 육도주차장에 조성된 야외영상장에서 열린다.

오후 7시 레드카펫 행사에 이어 배우 이종혁과 유선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은 김승수 조직위원장의 축사 및 개막선언으로 영화축제의 막을 연다.

이어 오후 8시 본행사에는 팝 피아니스트 윤현의 공연과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다편경쟁', '넷팩상'을 심사한 14명의 심사위원이 소개된다. 이후 이충직 집행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개막작과 함께 개막작(본 투 비 블루)의 감독 로베르 뷔드루와 작곡가 데이빗 브레드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인사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9시에는 개막작 '본 투 비 블루: 재즈 음악사에 이로써 저지 트럼펫 연주자 쉿 베이커가 솔과 악물로 보낸 60년대의 지난한 세월을 그린 영화' 상영으로 영화제 첫날 행사의 막은 내린다.

한편 이번 영화제의 특이점은 영화제의 모든 행사장이 영화의 거리에 집중돼 영화인과 관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전주라운지에는 개·페막식은 물론 대규모 야외 상영, 관객센터, 프로모션 부스 등이 운영되며 CGV 전주스페이스에서는 각종 공연, 게스트들의 무대인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 속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위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211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정혜은 기자

고창 문화의전당 4월 기획공연

한국의 무술가족이 전세계를 폭소로 뒤흔들었다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일 시 : 2016년 4월 28일(목) 오후 4시, 7시30분(1일 2회)
관 료 :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 (회원 20%할인)
관람연령 : 6세이상 관람가

이번 공연은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은 연기자들과 함께 무술 고수가 되어 '점프'의 극을 만들어 나간다

태권도로 꾸러지는 공연 '점프' 오늘 무대에

오후 4시·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

2008년 7월 초연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 '점프(JUMP)'가 오는 28일 오후 4시, 7시30분에 고창문화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점프는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에 손꼽히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판매순위 1위, 뮤지컬의 본고장 웨스트엔드의 피콕 극장에서 전회매진 등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공연이다.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와 택견을 통해 부드러우면서 강한 동양무술이 가지는 신체적 아름다움을 극대화 할 뿐 아니라 마살아츠와 공중을 차고 오르는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신체표현을 선보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함을 전달하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여기에 무술로 가족 사랑을 표현하는 별난 가족 이야기를 입혀 끊임없는 웃음의 순간을 선사한다.

언어의 사용을 배제한 난버벌 퍼포먼스(비언어극)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극의

자투리하나 난해함을 완전히 극복하고,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도 탄탄한 드라마 구성과 곳곳에 등장하는 코미디적인 요소로 남녀노소와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 작품이다.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구성되어 언제 어떤 선택될지 모르는 관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대에 올라 연기자들과 함께 무술 고수가 되어 '점프'의 극을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스킬을 맛볼 수 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이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gcl.go.kr>)나 문화의전당 사무실(083-560-8041)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형유산 전문인력 육성위해 '한국전통문화대' 신입생 모집

지난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무형유산학과가 신입생 15명을 선발한다. 졸업 후 무형문화재 연구,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분야로 진출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총장(고교마을사업)은 "전통문화 융성과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재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5월 23일부터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대는 실기·실습 중심의 특성화 교육 강화, 현장맞춤형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국제교류 강화와 인프라 확충, 입학·취업지원 제도 개선, 문화유산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학제로 내년부터 개편된다. 실습·실기 교과목 비율을 2014년 학과별 평균 48%에서 2017년에는 64%로 상향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을 확대 운영한다. 소주제 연구실적,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 문화재 관련 사회봉사 활동 문화재수리기술자 양성 차원의 자체 시험 통과제 등 학과별 특성에 맞는 졸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복원 현장과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수리기술자 등 현장 전문가를 초빙·겸임교수로 영입한다. 취업과 이어지도록 3~4학년은 문화재 보수와 발굴 현장에서 7~15주 간 현장 실습을 한다. 전공필수 과목이다.

재원사접수 기간은 특별전형 5월 23~27일 일반전형은 7월 4~8일이다. 일반전형 필기시험은 7월30일에 본다. 문화재수리 기술·기능사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은 올해 39%에서 2017년에는 45%가 된다. /정혜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28일)

<p>▶쥐띠 46년생: 자신과 뜻이 맞는 동기를 만나는 좋은 운이다. 60년생: 큰 욕심은 풀리니 매사 주의하라. 7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관련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 깊게 살피고 행동하라.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때다.</p>	<p>▶소띠 49년생: 처음에는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나 후반에는 자연스럽게 풀린다. 61년생: 자기의 주장이 상대방에게는 고집을 피우듯 같이 비춰진다. 73년생: 손윗사람과 함께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85년생: 이성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하는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동기근짜의 디톡에 주의하라. 62년생: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주의하라. 74년생: 상대방과 불화가 예상되니 언쟁은 피하라.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던 이익이 있으나 내부적인 일은 마음을 비워라.</p>	<p>▶토끼띠 51년생: 적대적이었던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다. 63년생: 시비가 따르니 타인과의 관계에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운이다.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p>
<p>▶용띠 52년생: 나를 위한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면 공이 돌아온다. 64년생: 처음에는 불화하나 나중에는 화합한다. 76년생: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p>	<p>▶뱀띠 53년생: 상대방이 나에게 걸고 속이 디르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이기가 하는 시기.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가볍게 던진 말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하라.</p>	<p>▶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운이다.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78년생: 사교수와 절망수가 따르니 운전은 삼가하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고 미뤄라.</p>	<p>▶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히려 받은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언행에 주의해야 하겠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 91년생: 금전운이 약하고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기는 운.</p>
<p>▶원숭이띠 55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9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81년생: 먼저 베풀면 배운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3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p>	<p>▶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라.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 미혼자에게는 이성과 만남이나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p>	<p>▶개띠 45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59년생: 들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1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운이 막혀 있는 때이다. 83년생: 운전은 금칙적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칠 수 있다.</p>	<p>▶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5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이니 센스 있게 넘겨라. 71년생: 이성의 불화가 예상된다. 83년생: 잇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라.</p>